

#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 이슈브리프

中 산학협력의 상징 '베이다팡정'의 위기와 전망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현황

## 국제금융시장

##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 주간 KDB리포트 Contents

## 이슈브리프

中 산학협력의 상징 '베이다팡정'의 위기와 전망 .....	1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현황 .....	4

국제금융시장 .....	6
--------------	---

##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	10
--------------------	----

## 中 산학협력의 상징 '베이다팡정'의 위기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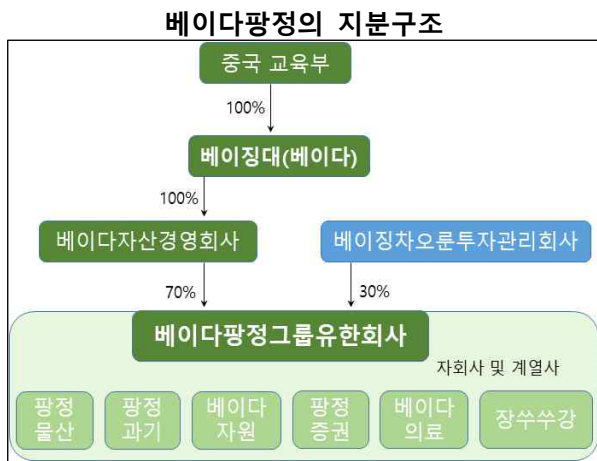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이은영 (liey@kdb.co.kr)

- ◆ 베이다팡정은 베이징대가 설립한 대표적 성공모델이었으나 '19년말 채권 만기 상황에 실패, 중국의 기업 부실 리스크가 신용도 높은 선도 IT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불안감 조성
  - 동사 신용등급은 12.2일 20.73억위안(약 3.3천억원) 상황에 실패한 직후 AAA에서 A로 강등
- ◆ 부채에 의존한 무분별한 사업다각화와 저조한 수익성,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등이 위기 원인으로, 상환 시점은 '20.2.21일로 연장되었으나 일시적 봉합 조치에 불과
- ◆ 베이다팡정의 채무 상환 압력은 당분간 지속되고, 여타 샤오반 기업의 역외 자금조달 여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 중국 '반도체굴기'의 주력이자 또 다른 대표 산학 기업인 칭화홀딩스(칭화대 지분 100%) 자회사의 달러채 금리는 베이다팡정 디폴트 직후 30%대로 급등

### □ 베이다팡정은 '80년대 베이징대가 설립한 대표적 '샤오반 기업'이며 '19년에는 화웨이, 레노버 등에 이어 중국의 전자IT 기업 5위에 선정

- 샤오반(校辦) 기업은 대학, 연구소가 설립하거나 지배주주인 일종의 '산학협력' 기업
  - 베이다팡정, 칭화홀딩스, 레노버 등은 베이징 중관춘\* 소재 대학과 연구소에서 배출한 샤오반 기업의 대표적 성공 모델
    - \* 중관춘은 베이징대, 칭화대, 인민대, 중국과학원 등 중국의 명문대와 중점 연구소가 밀집한 지역. 우수한 인력과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중국의 '실리콘밸리'이자 산학연 협력의 '메카'로 자리매김
  - 개혁개방 초기인 '80년대 중국 정부는 대학,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과 인력을 활용하여 단기간내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샤오반 기업 육성
    - 당시 대학들 역시 국가재정이 취약한 상태에서 교육, 연구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 충당할 필요가 있어 샤오반 기업 설립에 적극적
- 베이다팡정그룹유한회사(이하 베이다팡정)는 '86년 베이징대가 설립한 샤오반 기업으로 중국내 5위권인 전자IT 분야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업 영위
  - 동사의 지분은 베이징대 산하 베이다자산경영유한회사가 70%, 베이징차오룬투자관리회사가 30%를 보유 중이며, 유형 분류상 중앙 국유기업\*에 속함
    - \* 베이다자산경영유한회사의 지분은 베이징대가 100% 보유, 베이징대의 지분은 교육부가 100% 보유하고 있어 베이다팡정의 실질적 지배주주는 중국 교육부, 즉 정부기관임

- 베이다광정의 총자산은 '19.3분기 기준 3,657억위안(약 60조원)이며, 사업영역은 IT, 종합상사, 의약·의료, 금융, 부동산, 철강 등
  - IT 분야의 경우 중국의 전자정보산업연합회가 선정한 '19년 전자IT 기업 순위에서 화웨이, 레노버, 하이얼, 샤오미에 이어 5위를 차지
  - 다만 동 그룹의 전체 매출에서 가장 비중이 큰 업종은 종합상사 분야로 '18년 기준 51.2%이며 다음으로 IT 18.6%, 부동산 17.5% 順



주 : 동 그룹은 위의 기업 이외에도 광정전자 등 다수 자회사 보유  
 자료 : 사업보고서 등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베이다광정의 '18년 업종별 매출구조**  
 (단위 : 억위안, %)

업종	매출액	매출비중	매출총이익률
종합상사	682.4	51.2	0.31
정보기술(IT)	247.5	18.6	7.51
부동산	232.7	17.5	21.27
금융	85.3	6.4	61.13
의약·의료	39.0	2.9	25.76
철강	32.2	2.4	9.09
기타	13.6	1.0	45.16

주 :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총이익률은 '16~'18년 평균치 기준  
 자료 : 신용평가보고서, 귀성증권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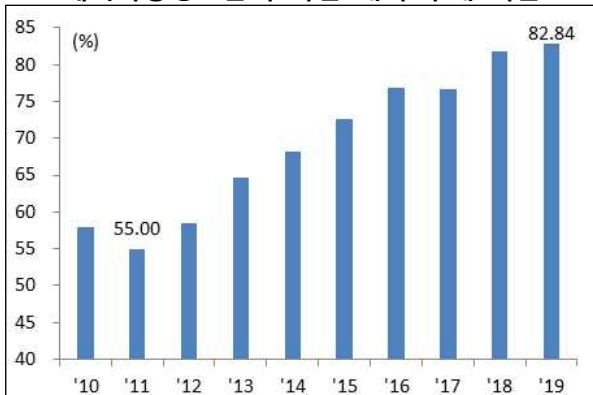
**□ 그러나 무분별한 사업다각화 여파로 채무 부담은 대폭 증가한 반면 수익성은 저조하여 최근 만기 도래한 단기채 원리금 상환에 실패**

- IT, 의약·의료 분야에서 종합상사, 부동산, 금융 등으로의 사업 다각화 과정에서 高부채, 低수익성 문제가 야기되었고 최근에는 주주권 분쟁까지 발생
  - 베이다광정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1년 55.0%에서 '19년 82.8%로 대폭 증가, 이를 자본 대비 부채 비율로 환산하면 약 483%에 달함
  - 반면 모회사 주주 귀속 당기 순이익은 3년 연속 적자 기록\*
    - \* 적자 규모는 '17년 5.4억위안, '18년 3.4억위안에서 '19.1~3분기 32.0억위안으로 대폭 확대. 매출 비중이 절반 이상인 종합상사 부문의 '16~'18년 평균 매출총이익률(판관비, 감가상각비, R&D, 이자비용 등의 차감前 이익률)은 0.31%에 불과
  - '00년대 샤오반 기업 개혁 당시 유치했던 전략적 투자자와 베이다자산경영회사간 주주권 법정 분쟁이 발생하는 등 기업지배구조가 모호하고 취약한 상태
- 베이다광정은 지난 12월 단기채 원리금 상환 실패 이후 상환시점을 '20.2월로 연기하였으나 지명도 높은 선도 IT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대내외 불안심리 상승

- 동사가 '19.3.4일 발행하고 '19.12.1일에 만기도래한 20억위안(약 3.3천억원) 채권 상환에 실패하자, 신용평가사 렌허즈신은 즉각 신용등급을 AAA에서 A로 강등
- 베이다광정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동 채권 상환기간을 '20.2.21일로 연기
  - 미지급 이자를 상환하는 한편 보유 중인 충칭은행 주식 9,450주로 신용을 보강(credit enhancements)하였고, 상환 연장기간 금리는 기존 4.94%로 유지
- 유예한 기간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동 그룹의 계열사 역외채권의 '크로스 디폴트(cross default)\*가 촉발될 것으로 우려

\* 크로스 디폴트는 특정 채무계약에서 디폴트를 유발한 채무자에 대해 다른 채무계약 혹은 다른 계열사의 채권자가 만기도래 이전에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으로, 최근 중국기업들은 계열사의 자금 조달이 용이하도록 달러채 등을 발행할 때 동 조항이 포함되어 연쇄 디폴트 소지 확대

베이다광정그룹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주 : 연결재무제표 기준. '19년은 3분기 수치  
자료 : 동사 연차보고서, WIND

베이징대, 칭화대 계열 기업 달러채 만기 시점

(단위 : 억달러, %)

발행 기업	未상환액	표면금리	만기
NUOXI Capital(北)	3.00	4.575	'20.04.20
Dawn Victor(北)	3.50	8.450	'20.07.14
21ViaNet(清)	1.49	7.000	'20.08.17
Kunzhi(北)	4.90	6.250	'20.10.17
First FZ Bond(北)	2.00	6.900	'20.11.16
Unigroup International Holdings(清)	4.50	6.000	'20.12.10

주 : (北)은 베이징대 계열, (清)은 칭화대 계열 기업 지칭  
자료 : Bloomberg, 귀성증권연구소

□ 베이다광정의 채권 상환 압력은 '20년에도 지속될 뿐만 아니라 중국기업 신용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여타 유력 기업의 역외 조달금리 상승요인으로도 작용할 전망

- 베이다광정의 '20년 지급 예정 채권 원리금은 총 95.3.억위안(약 1.6조원)\*
  - \* 동사의 전체 채권 잔액은 '20.1월 기준 365.4억위안(이자 포함)이며, 크로스 디폴트 소지가 있는 계열사의 역외채권 잔액은 약 32억달러
  - 상반기 중 2.21일 20.73억위안, 5.31일 10.62억위안(이자 포함) 상환 예정
  - 신용등급 강등으로 자금조달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고 재융자 여력도 제한적
    - 상장 자회사인 광정과기, 광정증권의 경우 지분 100%가 대출 담보로 제공 중
- 베이다광정의 디폴트 사태는 중국 '반도체굴기'의 주력이자 또 다른 대표 샤오반 기업인 칭화홀딩스(칭화대 지분 100%) 등의 달러채 금리에도 영향\*
  - \* 칭화홀딩스의 자회사인 Unigroup International Holdings의 달러채 수익률은 '19.11월 10%대를 유지했으나 베이다광정 디폴트가 알려진 직후 급등하여 '19.12.3일부터 10일간 30%대 유지

#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현황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유지혜 (ester80@kdb.co.kr)

- ◆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은 정부의 할당 외에 외부 공급이 없어 수급불균형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해외 주요 배출권 시장 대비 높은 수준으로 기업부담 가중
- ◆ 외부 감축분(CDM) 인정이나 탄소 감축 기술개발 노력 등 인센티브를 반영한 할당으로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선순환 유도 필요

□ '20년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한 이후 제2기 계획기간 종료와 **新기후변화체제\* 출범이 맞물려 기후변화 대응체계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

\*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것으로, '20년 만료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新기후변화체제로 195개 당사국 모두에 구속력 있는 보편적인 기후합의이며 자발적 감축목표에 대한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음**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실질 배출량을 평가하여 잉여 또는 부족분은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 이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온실가스 감축체제이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년부터 국내 시행중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은 의무적 할당대상업체와 자발적 참여업체로 구분되며 계획기간에 따라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 제3기에는 10%까지 확대
  - 정부는 규제 초기 의무감축 대상자별 저감목표 설정을 위해 과거 배출실적에 따라 배출권을 무상으로 배분하였으나, 제2기부터 일부 경매를 통한 유상할당으로 감축 유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별 운영 현황

구분	제1기('15~'17년)	제2기('18~'20년)	제3기('21~'25년)
주요목표	경험 축적 및 거래제 안착	상당수준 온실가스 감축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제도운영	· 상쇄인정범위 등 제도의 유연성 제고 · 정확한 MRV <sup>주</sup> 집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거래제 범위 확대 및 목표 상향조정 · 배출량 보고·검증 등 각종기준 고도화	· 新기후변화체제 대비 자발적 감축 유도 · 제3자 거래제 참여 등 유동성 공급 확대
배출권 할당	· 전량 무상할당 · 목표관리제 경험 활용	· 유상할당 개시 (무상 97%, 유상 3%) · 벤치마크 할당 등 선진화	· 유상할당 비율 확대 (무상 90%, 유상 10%) · 선진적 할당방식 정착
대상업체수	592개('17년)	609개	-
할당량	16억 86백만톤	· 사전(무상) : 16억 43백만톤 · 경매(유상) : 795만톤('19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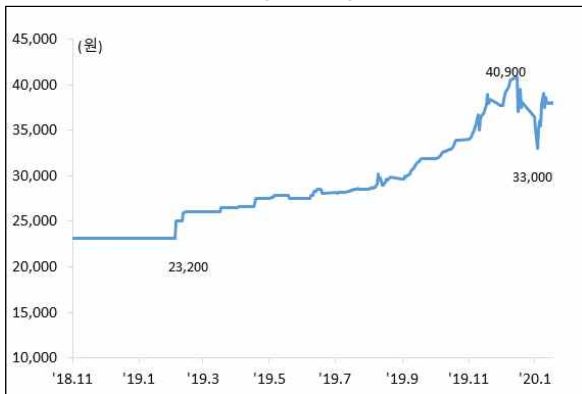
주 : MRV는 Measuring, Reporting, Verification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보고·검증 체계를 의미

자료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재구성

□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은 수급불균형에 따라 가격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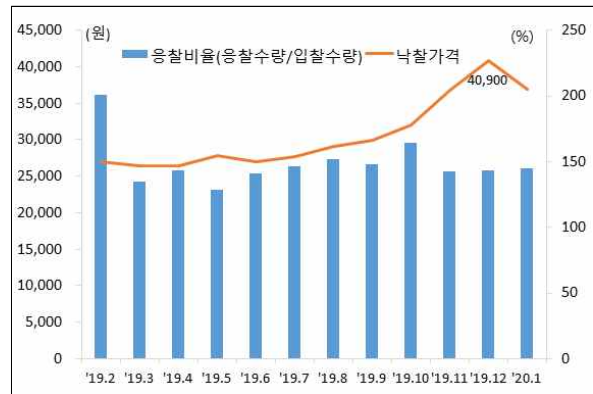
-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격은 정부 할당 외에 추가적인 공급이 없어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 상승세 지속
  - '19년 배출권(KAU19) 종가 기준으로 '19.2월 1톤당 23,200원에서 '19.12월 최고가 40,900원으로 76.3% 상승
  - 유상할당인 배출권 경매 낙찰가격의 경우에도 연초대비 상승세를 이어가며 '19.12월에 40,900원을 기록하는 등 시장가격에 수렴하는 모습
  - 국제탄소시장협력포럼(ICAP)\*의 '19년 보고서에서 주요국 배출권 거래시장의 가격과 비교해도 한국의 배출권 거래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
  - \* 주요국 배출권 거래가격('18년) : \$20.62(KETS), \$18.76(EU ETS), \$15.71(NZ ETS), \$14.91(WCI), \$4.87(RGGI)
- 제3기 계획기간('21~'25년) 중에는 배출권의 유상할당 비율이 기존 3%에서 10%로 확대되므로 가격 상승세와 함께 대상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 대상기업은 할당된 배출량보다 10% 이상 감축하지 못할 경우 경매 등을 통해 유상으로 배출권 구매의무 부담
  - 배출권 경매 응찰비율이 '19년중 지속적으로 100%을 초과하는 등 배출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

'19년 배출권(KAU19) 가격 추이



자료 :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19년 배출권 경매 낙찰가격 현황



자료 :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 실질적인 배출량 감축 선순환 유도를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영한 배출권 할당 등이 필요

- 과거 연평균 배출량에 따라 무상할당이 배분되는 구조에서는 저배출 설비투자로 배출량 감축시 다음 기간 무상할당량이 감소하는 결과로 설비투자 유인이 낮은 편
-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시장조성자 제도뿐만 아니라 외부 감축사업(CDM) 등으로 국내 배출권 시장에서 제3자 참여를 높여 수급불균형 해소 필요

# 국제금융시장 1월 동향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김혜진 (ghjkim@kdb.co.kr)  
 정대형 (wellbaby@kdb.co.kr)

- ◆ **(환율)** 달러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 등으로 강세 시현, 원/달러 환율도 美·中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완료로 하락하였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며 월말 큰 폭으로 상승하는 높은 변동성 시현
- ◆ **(금리, 주가)** 美 기준금리 동결 및 안전자산(美 국채) 선호로 장단기금리 역전이 발생, 美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나 코로나바이러스로 세계증시 급락세 전환

□ **(환율)** 달러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 미국 경제지표 호조세 등의 영향으로 강세, 원/달러 환율도 미·중이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함에 따라 1,150원대까지 하락하였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려로 월말 1,190원대로 급등

- 달러 인덱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및 기타국 대비 美 경제지표의 호조세 등이 달러화에 대한 강세압력으로 작용하여 큰 폭으로 상승
  - \* 메이저 6개 통화(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네) 대비 달러화 가치
  - 21일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전염병으로 분류함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
  - \* 30일 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국제비상사태를 선포
  - 또한, 양호한 미국 경제지표\* 실적도 달러화 강세에 일조
  - \* 서비스업 PMI(7일)는 55.0pt로 전월(53.9pt) 대비 상승, 소매판매(16일)는 전월대비 0.3% 증가
- 엔화는 美·中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의 영향으로 월 중반까지 약세를 보였으나 월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우려가 부각되며 강세 전환
- 유로화는 美·EU 무역갈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의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한 우려로 약세 시현
  - 세계경제포럼(21~22일) 이후 탄소세, 자동차세를 둘러싼 美·EU간 갈등\*이 격화
  - \* 22일 EU 집행위원장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대한 탄소세 부과계획을 발표, 이에 대해 26일 美 상무부 장관은 EU가 탄소세를 부과할 시 EU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대응

주요 선진국 통화 환율 추이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1월말	전월대비
달러 인덱스	92.302	96.140	96.479	97.383	0.94%
엔/달러	112.67	109.61	108.66	108.35	△0.29%
달러/유로	1.1998	1.1456	1.1219	1.1090	△1.15%

자료 : 연합인포맥스

- 원/달러 환율은 대외 불확실성에 따라 큰 폭으로 등락하는 변동성을 보였으며 월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1,190원대를 돌파하는 급등세 시현
  - 월초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됨에 따라 1,180원대까지 상승하였으나, 美·中 1단계 무역협정 서명(15일)으로 1,150원대 수준까지 하락
  - 21일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반등 후 가파르게 상승, 월말 1,191.8원으로 마감

원화 환율 추이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1월말	전월대비
원/달러	1,070.5	1,115.7	1,156.4	1,191.8	3.06%
원/엔	949.9	1,017.9	1,064.2	1,099.9	3.35%

자료 : 연합인포맥스

□ (금리) 美 연준의 금리동결과 경기 둔화 전망으로 美 국채 장단기금리 역전이 10개월 만에 재현된 데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려로 글로벌 채권금리 급락

- '19년 하반기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하해온 美 연준이 FOMC 회의(28~29일)에서 금리를 동결한 반면, 성장 둔화 전망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로 장기금리는 하락하여 30일 美 국채금리가 3개월물 1.554%, 10년물 1.546%로 역전
  - 이에 더하여 미국 국채 10년 금리(31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19.10월 이후 최저치(1.507%)

□ (주가) 다우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1월중 美 증시의 호조가 지속되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월말 아시아, 유럽 증시 등이 일제히 급락

- 美·中 무역분쟁 봉합 기대감 등으로 1월 중 한때 다우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 (15~23일 29,000pts 상회)하기도 하였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하락
  - 홍콩(29일)과 대만(30일)이 각각 5.4%, 5.8%, 유럽 주요국 증시(30일)도 1.3~1.4% 급락했으며 1월말 다우지수도 전월말대비 0.99% 하락

주요국 국채 금리 및 주가 추이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1월말	전월대비
금리 (%)	미국채 10y	2.4054	2.6842	1.9175	1.5068	△41.07bp
	독일채 10y	0.4270	0.2420	-0.1850	-0.4340	△24.90bp
	일본채 10y	0.0480	0.0030	-0.0110	-0.0660	△5.50bp
주가 (pt)	다우존스	24,719.22	23,327.46	28,538.44	28,256.03	△0.99%
	유로 Stoxx 50	3,503.96	3,001.42	3,745.15	3,640.91	△2.78%
	Nikkei	22,764.94	20,014.77	23,656.62	23,205.18	△1.91%

자료 : Bloomberg

# 국제금융시장 2월 전망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김혜진 (ghjkim@kdb.co.kr)  
 정대형 (wellbaby@kdb.co.kr)

- ◆ **(환율)** 달러화는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 및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강세 예상, 원/달러 환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로 상승 전망
- ◆ **(금리, 주가)** 단기적으로 높아진 불확실성이 안전자산 선호를 강화시키고 채권시장 강세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한편, 주요국 증시에 대해서는 단기적 충격 및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환율)** 달러화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되는 가운데 기타국 대비 견조한 美 경제 성장세 유지 등의 영향으로 강세 예상, 원/달러 환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국내 및 중국 경기 둔화 우려로 상승 압력이 우세할 전망

○ **달러화 : 소폭 강세**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화 선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국 대비 견조한 美 경제의 성장세\* 역시 달러화 강세를 뒷받침
- \* '19년 경제성장률 : 미국 2.3%,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1.2%
- 사스사태('03년)로 당시 중국 경제성장률이 1.0%p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Brookings 연구소), 세계 경제에서의 중국 경제 비중\*이 확대되어 이번 사태가 세계 경제성장률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상당
- \* 세계 경제에서 중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GDP 기준, IMF) : '03년 4.3% → '19년 16.3%
- 다만, 당분간 美 연준의 국채매입 기조가 유지\*되는 점이 달러화 강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달러화 강세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 1월 FOMC에서 '19.10월부터 시행중인 국채매입(600억달러/월)을 최소 4월까지 유지하겠다고 발표

○ **엔화 : 보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는 강세요인이나 관광객 감소\*, 소비 위축 등의 일본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 약세요인도 상존
- \* '19년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3,188만명) 중 중국인은 959만명으로 30.1%를 차지

○ **유로화 : 소폭 약세**

- 중국 경기 둔화 가능성 및 유로존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 등으로 약세압력이 예상되나 심리적 지지선(유로당 1.10달러선\*)에 대한 부담으로 약세폭은 제한적일 전망
- \* '19년 달러/유로 환율이 1.10달러/유로선을 하회한 날은 15일, 전저점은 1.0899달러/유로

○ 원/달러 환율 : 소폭 상승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의 국내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중국 경제성장 둔화 우려\*에 따른 위안화 약세 가능성 등 약세압력 우세
- \* 메르스사태(15년)로 당시 한국 GDP성장률이 0.2%p 하락한 것으로 추정(美 질병통제예방센터)
- 다만, 전월의 상승폭(35.4원) 및 양호한 대외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은 제한적
- 한편, 미·중 1차 무역합의 서명에 따른 영향은 전년말 환율 하락에 충분히 반영되어 추가적인 하락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금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 각국 전파영향 등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안전자산인 장기채권 시장의 강세 모멘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빠른 국가간 전파로 인해 경제 및 금융시장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커진 가운데 단기적으로 높아진 불확실성이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 장기채 가격 상승 및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 확산은 주요국 증시에 단기적 충격 및 변동성 확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1월 연휴 직후 세계적인 증시 급락이 나타났으며, 여행객 급감 및 중국 조업 단축에 따른 세계 실물경제 위축은 당분간 피하기 어려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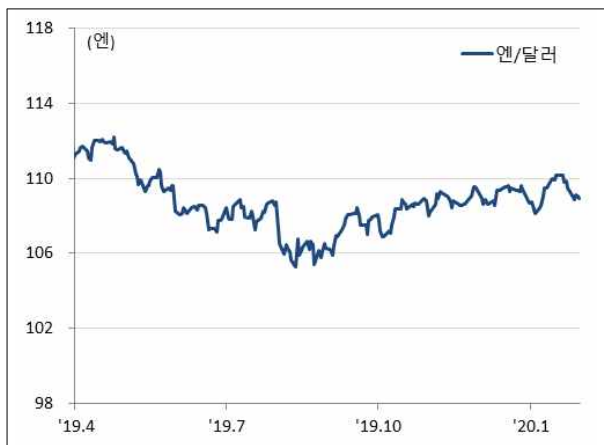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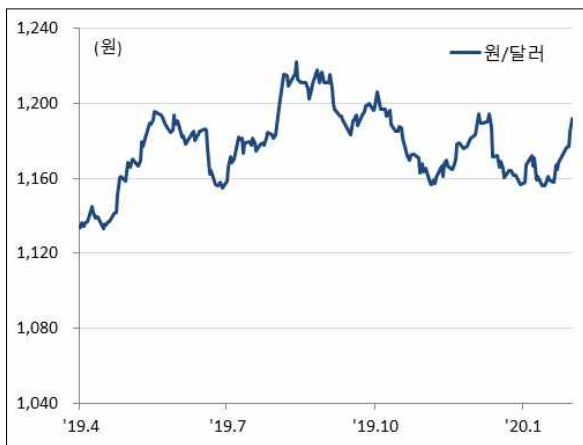
(담당자 : 환율 - 김혜진, 금리·주가 - 정대형)

# 금리 · 환율 ·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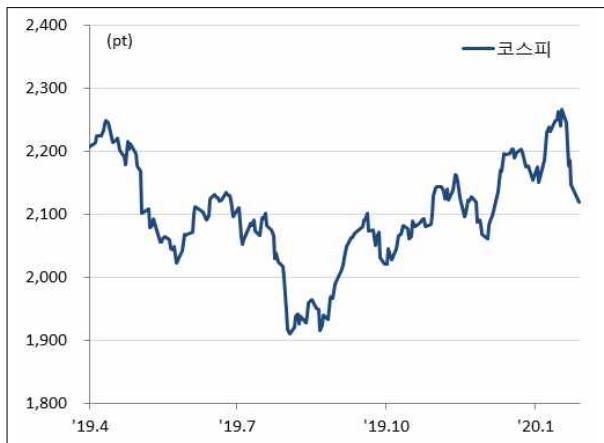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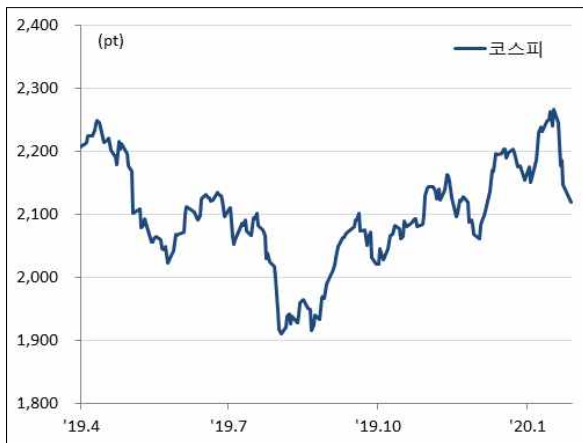
**금 리** 국고채3년 1.303% (12.1bp ↓), 신용스프레드 41.1bp (1.0bp ↑)



**환 율** 원/달러 1,191.8원 (23.1원 ↑), 엔/달러 108.91엔 (0.38엔 ↓)



**주 가** 코스피 2,119.01pt (5.66% ↓), 코스닥지수 642.48pt (6.29% ↓)



\* ( )는 전주대비 상승 ↑, 하락 ↓, 신용스프레드와 엔/달러는 목요일 종가 기준

##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제864호

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rd.kdb.co.kr](http://rd.kdb.co.kr), [kdb.co.kr](http://kdb.co.kr)  
**문의**                787.7826

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